11-10-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18-29
말씀제목: 소멸케 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소멸케 하시는 불은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불의한 모든 것을 태우심으로써 소멸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출 19:17-18)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소멸케 하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눅 17:26-30)

침례인 요한도 장차 불로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마 3:12)

사도 요한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대 환란 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계 8:7)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올 때에 하늘들과 땅이 불로 완전히 타서 녹아버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 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10-14)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 후 비를 내리신 것처럼 소멸케 하시는 불로 하늘들과 땅을 심판하시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올리셔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전 3:10-15)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온 후 지난 6000 년 동안 그로 인하여 하늘들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인해 더럽혀진 하늘들과 땅을 소멸케 하시는 불로 태우고 다시 새창조를 통해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멸케하시는 불로 하늘들과 땅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태우신 후에 나타나는 하늘들과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예언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계 21:1-8)

아멘! 할렐루야!